

(별첨)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가미카와 대신이 영상 메시지를 발표

(2024년 3월 8일)

안녕하세요. 외무대신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입니다.

오늘, 3월 8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전 세계 여성에게 기념이 되는 이날을 여러분과 함께 축하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제 사회에는 아직도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남녀 간의 경제적 격차가 폭넓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쟁과 재해는 여성, 어린이와 같은 약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미칩니다.

저는 금년 1월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거처를 잃고 어쩔 수 없이 피난 생활을 해야 하는 여성과 어린이들의 생활을 목격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가족과 사회 공동체, 우크라이나의 국민이 ‘재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하게 결의했습니다.

제가 보급에 힘쓰고 있는 여성·평화·안보(WPS)는, 평화 구축과 재해 복구 프로세스에서 여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다양성 있는 사회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실현하려는 활동입니다. 지금이야말로 WPS의 시점을 살린 외교를 추진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사명의 하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은 행동, 액션을 촉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전쟁·분쟁이 없는 세계, ‘누구 하나 뒤처지지 않는’ 사회의 실현을 향해 함께 걸어 갑시다.

(끝)